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멋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 문화체험학습을 마치고 22일(목) 귀국합니다.
- 이명호(양기모) 집사님이 20일(화) 수술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2 대안교육 정책 방향 포럼'이 23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 임원연수회가 25일(일) 오후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18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광희 목사 · 이근자 사모 가정  
장미숙 권사 가정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8 호

2022년 9월 18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지리산 등반을 다녀와서

지난주 멋쟁이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로 지리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지리산 대피소가 3년 만에 재개를 하면서, 지리산 산행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애써 예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어온 초대형 태풍 '힌남노'의 복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한 주 미루는 바람에 원래 예상했던 코스보다 짧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경남 거림에서 출발해서 세석과 장터목을 지나 중산리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거림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 다소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거림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서 등반을 시작하니 나지막한 등산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전에 올랐던 화엄사 코스와 백무동 코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림에서 오르는 지리산은 훨씬 편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지리산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북도에 모두 걸쳐 자리 잡은 곳이기에 오를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고 오르는 곳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화엄사에서 오를 때에는 정말 계속되는 가파른 오르막으로,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쉽사리 자신을 내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화엄사-노고단 코스는 세속을 잠시 벗어나 지리산을 오르려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일종의 시험 관문과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거림에서 출발하여 세석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많은 구간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지리산이 자신을 탐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소 친절을 베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천왕봉으로 가는 길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고 했던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인자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모습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의 중후함을 닮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리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것은 매 시각 바뀌는 날씨와 그때 그

때 바뀌는 지형이,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들고, 발걸음을 꾸준히 옮길 때마다 보여지는 아름다운 풍광들이 자연스레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산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은 새로운 생각들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산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로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서로 경계를 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르막을 오르거나 내리막을 내려가다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대체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양한 법이라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대피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사용한 일회용품 쓰레기를 버려두고 가버린다든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대피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떠든다든지 때로는 산행에서 위험할 수 있는 음주 파티를 벌이는 어른들을 볼 때,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기에 낮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조금은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산 아래에서 지니고 있던 못된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을 오르는 이들은 모두 멋진 일출과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며 산에 오르지만, 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올라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엄청난 안개를 동반하여,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멋쟁이들도 일출의 기대를 안고 새벽 천왕봉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을 잠시 벗어나 큰 산에 오르는 것, 그래서 최소한의 물건과 장비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는 것, 참으로 멋진 경험 같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 한주간 말씀

“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여호수아 14장 6-15절

제목 :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의 복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64 330 401 320

### 1.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허락 받았다.( 관찰 )

- 1)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6a>
- 2)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6b-12>
- 3)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13-15>

### 2.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은 영육의 복을 받는다.( 해석 )

- 1) 헤브론 받았다 = 축복의 유산(기업, 땅) = 세상의 복<13>
- 2) 헤브론 받았다 = 충성의 결과(근거) 전체 중심단어 “충성”<8,9,14>
- 3) 헤브론 받았다 = 헤브론(아브라함 정착, 가족모 등) = 영적인 복

### 3.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자.( 적용 )

-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을 갖고 따르자. <7새번역> “확신”
- 2)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자.<7개> “성실한 마음”
- 3) 나이가 들더라도 ‘충성’이 변하지 말자.<11-12>

39세 출애굽, 40세 가나안 정탐, 78세 가나안 진입, 현재 85세.

##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로 오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도 있으면 이 땅에서 실현되고,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나라이다. 하늘나라는 저 세상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저 세상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와서 이 세상에도 있는 나라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술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표현이 없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나라요, 온 나라요, 또 계속해서 올 나라이다.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죽음 저편 저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정태적 공간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는 정태적인 공간 개념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후 세계의 어떤 공간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온다’ 혹은 ‘왔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다. 그 나라의 도래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고, 지상에서 그 나라의 완성 역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다. 물론 먼저 하나님 나라에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언하며 섬겨야 할 책무가 있지만,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은혜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불의의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 나라에 희망이 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부패하여 있을 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현명한 교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서 발췌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26 : 1-3, 5-6 인도자  
9 다함께  
영광 영광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이사야서 1 : 18 인도자  
384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요한복음 15 : 1-11 설교자  
438 사랑방  
“ 사랑으로 따릅시다 ” 권재만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한대훈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열매 맺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사랑으로 따릅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  
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13~16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  
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  
씀입니다.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가지를 제자들로 비유하시면서 잘 붙  
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을 9~10절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  
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  
로 순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  
게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것  
입니다.

사랑으로 따릅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  
어지고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요  
구되는 것은 교회성장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  
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9월의 교육 주제는 '지구촌은 한 가족'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민속춤 영상을 보며 음악에 맞춰 열정적인 춤을 신나게 따라 춰 보기도 했습니다. 톡톡이 세계 여러 나라 국기를 색칠해서 유리창에 매달아 만국기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꾸러기들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알고 타문화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무림리 윗마을에 사시는 이종옥 집사님 댁에 가서 사과와 포도를 따왔습니다. 정원 한 켠 탐스럽게 열린 사과나무와 아담한 포도나무 넝쿨 길이 어느 과수원보다 더 근사했습니다. 집사님 댁에서 사과랑 포도를 딴 것이 물론 좋았지만 옆 집 잔디밭에서 신나게 달리기를 한 것과 목화열매 속 솜털과 씨앗을 본 것도 참 좋았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돛자리를 깔아 금방 딴 사과와 포도를 대접해 주신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고 말씀해주신 집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에는 도토리야 밤을 주우러 산에 갔습니다. 아직 이른지 밤과 도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토리 몇 개는 주웠습니다. 밤은 못 줘야보다 싶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꾸러기들에게 밤을 두 개씩 나눠 주셨습니다. 어디서나 사랑받는 꾸러기들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사과 나무 잎, 포도나무 잎, 밤나무 잎을 탁본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산길에서 주운 도토리와 아주머니께서 나눠 주신 밤을 소중하게 가져왔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13일(화)~ 15일(목)까지 부산으로 테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아침 의정부 새말역에서 모여서 모듬별로 서울역에 간 후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처음 타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신기한지 화장실도 가보고, 열차칸 사이 보조 의자에 앉아 풍경도 감상하고, 달걀도 까먹고, 카드놀이도 하며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차에 내려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서 차박 차박 물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성도 쌓으며 놀았고 맛난 짜장면도 시켜서 먹었는데 꿀맛이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둘째 날과 셋째날은 모듬별로 시장에 가서 색도 사고 맛난 것도 사먹고, 박물관, 이층버스, 실내동물원 등 많은 곳을 가서 조별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야구장에 간 팀은 이\*\* 청년 찬스로 맛난 닭강정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열띤 응원을 했지만 저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선수와의 사진 촬영과 싸인으로 즐겁기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했는데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 언제나 다정스럽고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부산 시민들 때문에 아이들이 "부산 사람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함을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어느 선생님은 부산 사투리를 듣고 당황한 일도 있었는데 "아 들이랑 같이 여행 오셨는 가베~" ^^ (애들이랑 같이 왔나봐요~)

여행후기를 쓰며 추억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지리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태풍으로 코스가 변경되었지만 연기된 시간만큼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챙긴 짐과 여행을 위해 한 운동은 여행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고 자신감과 기대감을 줍니다. 자신감과 기대감은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어 주변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멋쟁이들을 지리산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산을 걸으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빠트린 물건, 아픈 몸, 신발의 망가짐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전에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그 빈틈을 채워주는 것, 넘치는 것을 나누고 부족함을 채움 받는 경험을 통해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것을 멋쟁이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2학기의 또 다른 시작인 지리산 여행을 의미 있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지리산이라는 목표로 하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흐린 날씨 속에서 걸었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지리산에서처럼 넘치는 것을 나누고 부족함을 채우는 멋쟁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 < 교사 : 박예나 >

## 멋쟁이학교 지리산여행 보고서

구름 속에 들어가 비바람이 가득한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안개는 저희의 눈을 가렸고, 한 치도 보이지 않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세찬 바람에 몸이 밀릴까 서로를 걱정했고, 혹여나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을까 같은 모둠도, 다른 모둠도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첫날, 거림에서 시작한 발걸음은 세석까지 이어졌습니다. 맑은 하늘에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걸었지만, 도착을 즈음하여 바람 소리가 스산해졌습니다. 몇몇 모둠이 도착한 후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늦은 모둠이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그 비는 오래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넉넉하게 출발했는데도 밤에 깔렸던 안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한 모듬 한 모듬 안개 속으로 배웅하며 출발했습니다. 장터목까지 짧은 거리를 두리번거리며 찾아갔고, 오후에는 천왕봉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바람과 안개이슬을 뚫고 도착한 천왕봉은 탁 트인 시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연무 위에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는 진경이었으나, 지리산의 화려함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뜰 확률이 없다는 것을 듣고도, 굳이 일출에 맞춰 산행하고자 하는 열 명이 훌쩍 넘는 멋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선생님들은 일출 모듬을 구성했습니다.

셋째 날, 천왕봉은 높았고, 해가 뜨기 전 특유의 어둠과 어제부터 계속되었던 안개는 빛을 비쳤음에도 길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바람은 난간과 바위를 붙잡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갔습니다. 당연히도 일출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긴 내리막을 지나서 칼바위를 지나 다행히 낙오자 없이 중산리로 하산했습니다.

폭풍은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어쩌면 목적했던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멋쟁이들은 이 과정 자체를 함께라서 즐거웠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멋쟁이는 극기를 위해서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정상이 목적이 아닌 함께 가는 걸음을 멋쟁이는 배웁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 자체가 멋쟁이들에게는 보물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수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한다는 그 진실이 저와 사랑방의 삶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청년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마태복음 7:13-14

인도 : 정태일 목사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국 해운 전도사의 공동체 사역을 위해
2. 교회개혁과 공동체들을 위한 기도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어린이학교 테마여행을 위해
  - 2) 멋쟁이학교 지리산 종주여행을 위해
  - 4학년 해외문화체험학습을 위해

## < 생활공동체 소식 >

태풍 힌남노로 인해 연기된 어린이학교와 멋쟁이학교 여행에 생활공동체 식구 중 선생님들은 부산과 지리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도 많은 바람이 불었고, 지리산에도 큰 바람이 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모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고 공동체 식구들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기도 뿐 아니라, 정태일 목사님을 비롯한 두 분 집사님께서 지리산 거림 탐방소 입구까지 함께 동행해주시면서 지리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멋쟁이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또 도착한 날에는 생활공동체 식구 몇 분이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림리 입구까지 나와 멋쟁이들을 학교까지 데려와 주셨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각 분야에 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나눠주시는 생활공동체 분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